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19. 1. 29.(화) 총6매(본문2)	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한명희, 사무관 최용철, 사무관 허원석 • ☎ (044) 201-3573, 3584, 3574 	
보 도 일 시		2019년 1월 30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30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대심도 지하개발사업의 안전을 묻고 답하다..31일 토론회 산학연 공개 기술토론회..30일부터 서울역에 관련 전시공간 조성 개방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월 31일(목) 14시 건설회관에서 지하 대심도 개발기술의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산·학·연이 참여하는 공개 기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 - 아울러,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지하 대심도 개발기술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역에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개방한다고도 밝혔다.
 - 본 토론회와 전시 홍보행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, 서울 제물포 터널 도로공사 등 최근 추진 중에 있는 대심도 지하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노선 주변 주민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께 지하 대심도 건설기술의 안전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.
- 공개 기술토론회(“지하 대심도 건설기술” 대토론회)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대한토목학회,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,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대한건설협회가 후원하여 실시한다.

- 토론회에서는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등 지하안전 관련 제도,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대책, 도심도 지하공간 발파 진동 저감방안 및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 후 패널 토론, 방청객 질의·응답 등이 완전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,
 - 국민들이 지하 도심도 시설들을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.
- 전시 홍보행사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공동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대한건설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로, 일반 국민이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서울역에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한달간 진행된다.
- 전시공간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하공간의 개념과 이용 필요성, 현재 도시의 지하시설물, 지하 공간 건설기술과 안전성 등을 이야기 방식으로 표현한 패널과 굴착기술·방재설비 관련 축소모형을 전시하고 관련 동영상도 방영할 계획이다.
- 또한, 전시공간을 찾기 곤란한 국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간편히 찾아보실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페이스북,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서도 관련 카드뉴스 및 동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행사를 통해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수한 지하도심도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, 지하공간 도심도 개발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안전하게 시공·운영되는지 확인함으로써, 지하공간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최용철 사무관(☎ 044-201-358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지하 대심도 건설기술 대토론회 개요

- 주 제 : 지하 대심도 건설기술 대토론회
- 일 시 : '19. 1. 31.(목) 14:00 ~ 18:00
- 장 소 :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(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)
- 주 관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대한토목학회,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
- 후 원 : 국토교통부, 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한국도로공사, 한국시설안전공단, 한국지하안전협회, 한국철도시설공단

<토론회 식순>

14:00-14:30	등 록
14:30-15:00	개회식
개회사	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
축 사	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
축 사	이종세 대한토목학회 회장
축 사	유한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회장
15:00-16:30	주제발표
발표 1	지하안전 관련 제도 소개(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) 권혁기 한국시설안전공단 지반시설성능실장
발표 2	도심지 지반침하 예방대책 백 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안전연구단장
발표 3	대심도 지하공간 발파진동 저감 방안 및 관련 기술 현황 이태노 성보지오텍 대표
발표 4	대심도 지하공간 보상제도 문훈기 다산컨설팅트 전문
발표 5	대심도 지하 화재 및 안전 감지 기술 유지오 신한대학교 교수
16:30-16:50	휴 식
16:50-17:40	패널 토론
좌 장	김상환 호서대학교 교수
토론자	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
	곽종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안전연구원장
	조복래 한국지하안전협회 기술위원장
	백기현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팀장
	홍준기 조선일보 기자
17:40-18:00	자유 토론 및 마무리
	방청객 질의 · 응답

<전시공간 설치(안)>



<전시공간 패널 구성>



첨단 공법을 적용하여 도심지 대심도 지하공간을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시공합니다.
 첨단 굴착장비인 TBM과 무진동 저소음 발파공법을 적용하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
 지상공간에서는 지하공간에 터널을 뚫는다는 걸 못 느낀다고 합니다.



또한 대심도 지하는 지층이 단단한 암반이므로 터널을 시공하는데 매우 안정적인 공간입니다

**지하 40m는 단단한 암반으로 이뤄져 있는 데다 충분히 깊어...
 대심도 터널 공사가 지표면에 있는 구조물의 안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
 이OO 교수, OO 대학교 (한국경제 2018년 12월 27일 기사내용 발췌)**



**도심지 녹지 및
 여가공간이 늘어납니다.**



**미세먼지 저감 등
 대기질이 개선됩니다.**



**출퇴근 시간이
 빨라집니다.**



**도시재생 촉진으로
 지역발전에 도움이 됩니다.**

대심도 지하공간의 활용으로 이렇게 좋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?



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례



미국 Boston Big Dig 프로젝트 사례

*사건율치 : 10years later, did the Big Dig deliver? (www.bostonjobe.com)

서울의 지하철만 하더라도 총 연장이 약 350km에 이르고 최대 77.1m 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.